

죽음을 기억하고 삶을 기약하기를

윤승현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규상

(주)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대표

우준승

레스건축 대표

서소문역사공원, 성지역사박물관

개요

위치	서울시 중구 칠패로 5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21,363m ²
건축면적	668.55m ²
연면적	24,780.76m ²
규모	지상 1층, 지하 4층
건폐율	1.8%
용적률	1.5%
설계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주)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레스건축
건축주	서울시 중구



로비의 십자기둥



성지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진입광장

모두가 공유하는 장소는
모든 특성을 희석시켜
무감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성적 가치를 발휘해
모두와 함께 그 독특한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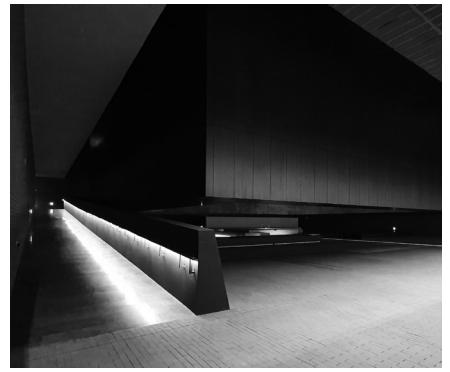




기념전당과 빛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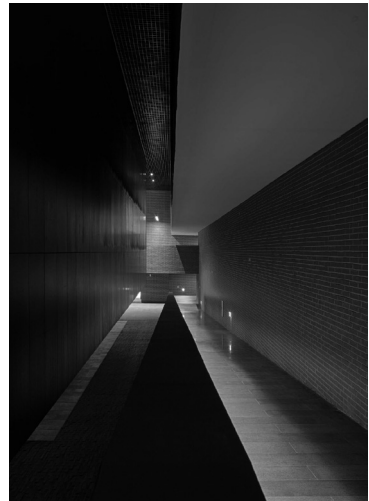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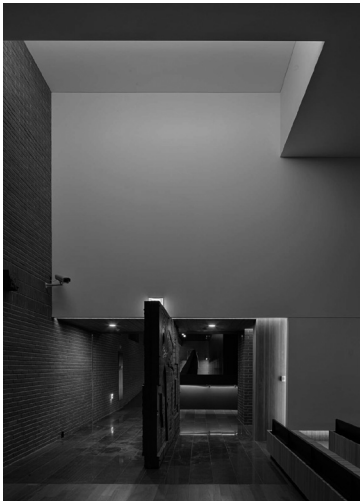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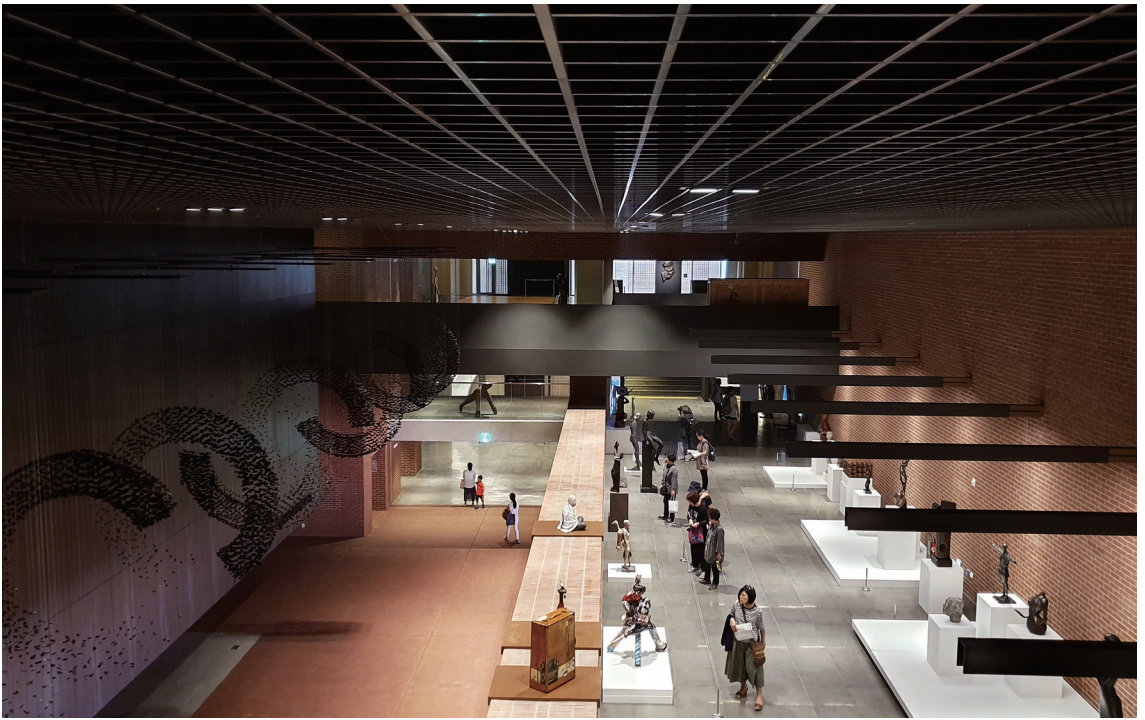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트



상 바닥에서 분리된 입방체 큐브
 중 빛이 흘러나오는 공간
 하 어둠과 빛의 대비가 이뤄지는 벽



상 정하상기념경당
 하·좌 노출된 콘크리트와 벽들의 조화
 하·중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하·우 기념경당으로 가는 길



상 위에서 내려다본 전시공간
하 순례길을 건축학적으로 재해석한 하늘광장

한 공간이 지나온 역사와
그 장소가 품고 있는 깊이를 충분히 담아내고
고유의 분위기로 펼쳐 낼 때
비로소 공공적 가치를 발휘하고,
가장 공공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브

조선 중기 이후 300여 년 동안 국사범들의 처형장으로 이용됐기에 서소문역사공원은 슬한 애환이 서린 장소다. 특히 1801년 신유박해부터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신념과 신앙을 견지한 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천주교 박해의 산 장소였고, 이를 추도하여 44인 성인이 시성됐던 한국천주교의 성지 중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장소는 1973년 근린공원으로 지구 지정되면서 공공의 휴게공원으로 쓰이게 됐지만 경의선 철로와 서소문고가로 인해 접근로가 차단된 음지의 공간으로 전락하게 됐고, 중구의 재활용쓰레기 처리장과 900여 대의 공영주차장 등이 공원 하부에 건립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천주교 성지 vs 공공공간

어느 이들에게는 숭고한 신념의 장소이자 신앙의 장소로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또 어느 이들에게는 냄새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건조한 주변 환경 속에 그나마 녹지공간으로서 휴식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던 장소다. 또한 서울역 인근에 밀집한 노숙인들에게는 그늘을 찾아 잠을 청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기도 했다. 바라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아주 다르게 인식되는 장소이고, 그렇기에 갈등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는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그 자리에 담지 못한 이유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소모적인 현상이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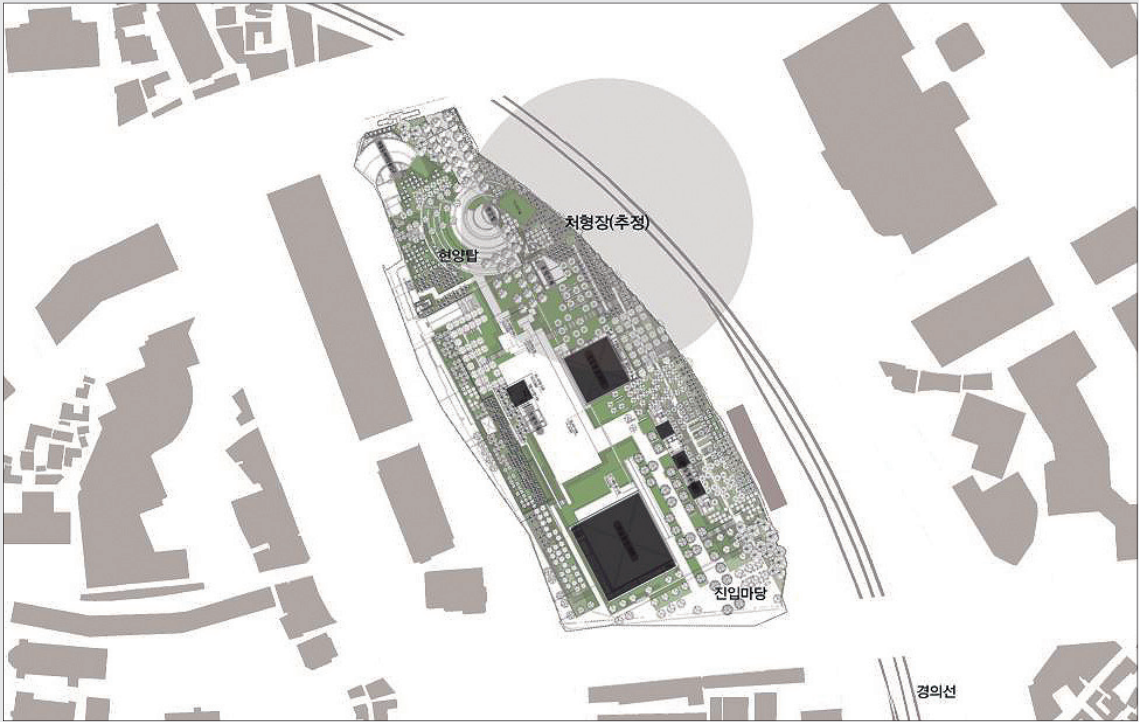
본디 국사범의 처형지로 쓰였다 함은 사람들의 모임이 빈번하던 장소임을 방증한다. 처형의 메시지를 한껏 알려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중적 장소였지만, 어찌 보면 권력의 폭력성과 시대적 편협성에 반하는 항거의 상징적 장소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장소는 시대정신이 발원하는 장소이자 신념의 장소로서의 상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곳이다. 길게는 300여 년 잘못된 권력에 항거한 신념으로 가득 찬 선지자들의 역사가, 짧게는 신앙을 통해 평등과 인간애를 설파한 230여 년 한국천주교 역사를 품은 산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 장소는 이와 같은 역사성과 장소성의 의미를 포함한, 특별한 장소적 가치는 간과한 채 특성 없이 조성된 근린공원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함께 안지 못한 절름발이 공공공간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카드



로비의 십자기둥



조감도



단면계획

한 공간이 지나온 역사와 그 장소가 품고 있는 깊이를 충분히 담아내고 고유의 분위기로 펼쳐 낼 때 비로소 공공적 가치를 발휘하고, 가장 공공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일만이 천주교인들의 성소 장소로만 아니라 서울과 서울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치 있는 장소로 거듭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장소는 모든 특성을 희석시켜 무감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성적 가치를 발휘해 모두와 함께 그 독특한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땅 위 vs. 땅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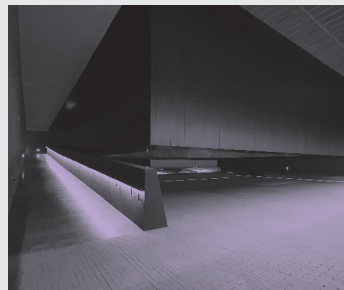
과거의 역사는 기억에 남고, 현실은 삶으로 지속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다. 땅 위에서 벌어졌던 상처와 기억, 후일 기념의 뜻은 그 땅에 새겨지고 땅 밑으로 스며들었으며, 우리는 그 땅에 기대어 지금 살고 있다. 역사에 기반을 둔 현재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은 땅에 스며든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이것이 대지의 위와 아래가 하나로 결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1996년 지어져 활용된 지하 4개 층 1만 1,000여 평의 공영주차장 공간을 재편해 역사기념공간을 건립함에 있어, 지하와 지상의 관계는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건축적 개념의 한 축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공원으로서 기념성을 담고 현재의 공공적 가치가 발휘되는 땅 위의 기념공원과 그에 기반을 둔 지하 역사박물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이 관계를 둘러싼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흐름이 땅 위와 땅 아래를 넘나드는 공간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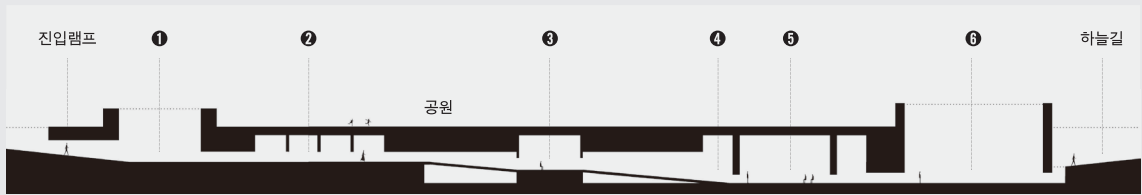
기념성 vs. 일상성

기존의 기능대로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의 휴식 쉼터이자 건조한 주변 여건 속에서 녹지 경관을 제공하던 일상적인 공원 성격을 드러내며 새로 발돋움하는 역사공원으로서의 기념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상을 떠올렸다. 이를 위해 공원 경계부를 예뉘려 두꺼운 수목의 녹색 띠를 조성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공원의 안팎의 경계를 분명히 해 비워진 중앙부를 통해 장소적 기념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그곳에 담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사방이 두꺼운 녹지의 풍경으로 둘러싸이던 지하의 역사박물관 광장 벽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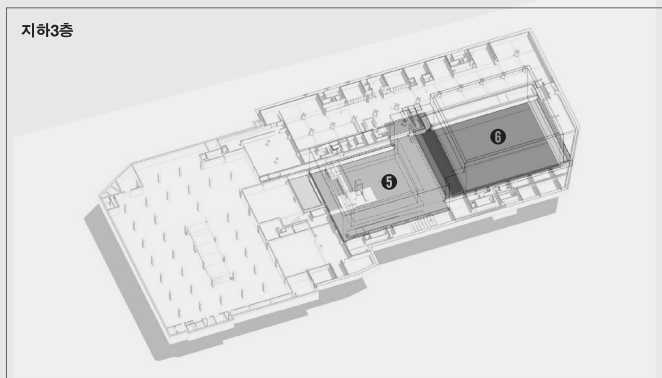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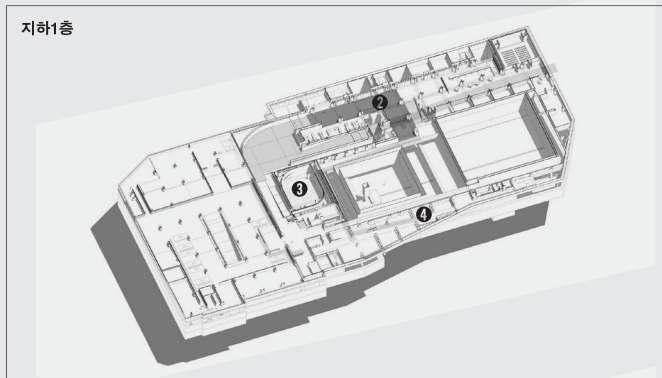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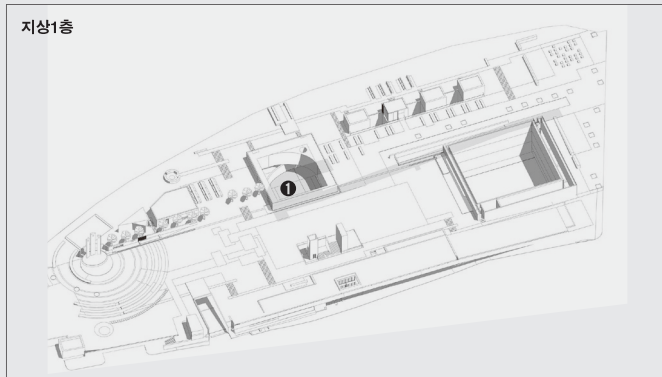
©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카드



상 기념전당과 빛 우물
중 바닥에서 분리된 입방체 큐브
하 어둠과 빛의 대비가 이뤄지는 벽



순례의 길 Diagram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카드

1. 진입광장
2. 로비
3. 정하상기념경당
4. 램프의 끝
5. 기념전당
6. 하늘광장

어 벽을 드러내어, 암시적으로 지하의 존재감을 알리는 동시에 비워진 메모리얼 플라자로서 장소가 품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도록 했다. 또한 이는 그대로 비워진 곳이 아니라, 장소가 가진 상징성을 발하도록 구상된 공간이다.

이 기념의 마당에 연결해 33m 높이의 메모리얼 타워를 배치하는 계획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공원의 지반과 하늘과의 관계를 만듦으로써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한 구상이었다. 공원 바깥, 바빠 움직이는 가로에서 볼 때 풍부한 녹색 풍경을 제공하되 33m 메모리얼 타워가 역사공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조성된, 얇지만 밀집 식재되어 있는 경계부 녹지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는 구상이었다. 이와 같은 ‘겹’의 공간 배치로 기념성과 일상성이 함께 발휘되는, 작지만 알찬 역사공원이기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공원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단일한 식재 위주로 조성하고자 했던 의도가 여러 이유로 관철되지 못한 점, 공사 시행 중 여러 사정으로 메모리얼 타워가 시공되지 못하고 그에 짝을 이루던 메모리얼 플라자가 잔디밭으로 무단 변경된 점 등 그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조성 완료된 것은 설계자로서 두고두고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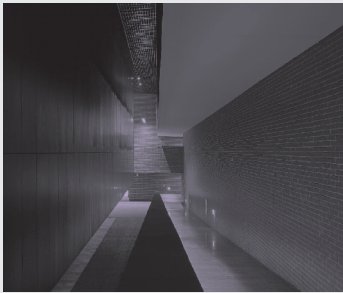
그리드 체계 vs. 선적 움직임

기존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조를 활용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히 주차장 공간 효율적 측면만으로 설정된 7.5m×8.0m의 격자 모듈이 성지 박물관 공간의 근간적 그리드 체계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130여 개의 단위 입방체 그리드는 2~3층의 다층적 구조로 연속되며 끊임없이 증식·통합되어 가는 형식으로 전개되어 가도록 구성됐고, 그 단위 그리드는 1.5m×1.5m 십자기둥에 의해 독자적 위상을 갖춘 독립적 공간이 됐다. 또한 이는 개별 영역의 독립적 가치가 존중되며 전체 영역까지 이르는 긴밀한 흐름을 유도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주)건축사사무소 인티카드



상 성지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진입광장
하 진입광장 초입



상 정하상기념경당
중 노출된 콘크리트와 벽돌의 조화
하 기념경당으로 가는 길

이러한 장소의 고유한 위상에 기반을 둔 공간의 전개는 도합 300여 m에 이르는 진입 램프길에서부터 박물관 내의 기념전당을 에둘러 하늘광장에 이르는 경로와 다시 지상을 향해 길을 인도하는 하늘길까지의 경로를 통해 순례의 과정으로 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쉽 없이 변화하는 기회를 갖고, 전체 시설의 통합적 책임 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매우 정적이되 땅 위에서 시작해 땅속 깊은 곳으로 끊임없이 움직임을 유도해 증식해 가는 공간들의 향연. 그리고 그 끝은 하늘에 다다른다.

순수 vs. 기교

기둥과 보의 두께 30cm 노출콘크리트는 공간은 흘러 연속되지만 단위 공간의 고유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구축적 재료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켜켜이 쌓여 공원 상부까지 흘러 올라가는 벽돌은 지상과 지하의 매개적 장치이자 각 공간의 고유성과 그 흐름을 유도해 분위기를 연속시키는 감성적 재료다. 이는 엄격한 그리드 체계의 단위 공간과 관객 흐름의 움직임과 함께하는 공간 전개 체계를 존중하는, 순수한 공간과 재료의 조우로 정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천연의 재료인 철판과 나무·석재는 콘크리트와 벽돌에 공간의 성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덧대어지는 테 쓰이는 재료다. 세공의 묘를 살리되 구축적 재료인 콘크리트와 벽돌의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키 위해 최대한의 절제미를 기했다. 재료의 성질과 축조의 정성을 드러내되 즉흥적 재기가 발휘되지 않는 기교를 발휘하려 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과하면서 부족한 것은 우리의 한계였다.

기념전당 vs. 하늘광장, 죽음과 삶

기념전당은 경계를 분명히 드리우지만 누구나 환영한다. 두께 1.5m, 25×25×10m 크기의 입방체 튜브 형태로 조성된 공간은 사방이 열려 2m 높이로 떠 있는 틈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경배의 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듯 땅속 14m 깊이에 조성된 어둠의 공간은 스스로의 방식대로 신념을 다한 위인들을 위한 기념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지만 영롱한 빛 우물은 전당의 바닥이 있음을 알린다. 마치 그들의 신념이 여전히 땅속 깊은 그곳에서 빛을 내는 것처럼

럼. 그곳은 집회의 공간으로 설정돼 계획됐지만, 어둠의 빛으로 깊이를 알 수 없을 듯한 이 기념전당 자체가 가장 소중한 이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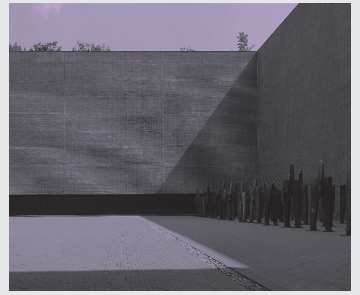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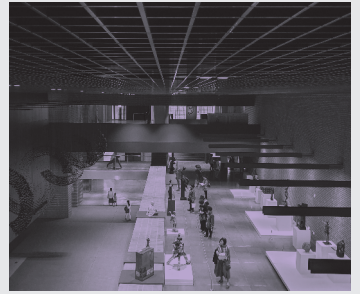
기념전당의 반대편에는 찬란히 하늘로 향한 광장이 병렬하고 있다. 기념전당을 거쳐 33×33×18m- 원래 계획됐던 20m보다 2m 낮추어 건립됐다- 의 사방이 무표정한 벽돌 벽으로 둘러싸여 하늘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는 광장에 도달되는 것이다. 압도되는 스케일에 자기 자신의 미약한 존재감이 각인되지만, 하늘과 교우함으로써 그 존재감은 빛나게 되길 기대하는 공간적 장치이고, 정점의 피날레 공간이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충만한 삶으로 계승되리라.

열림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5년 여의 험난한 설계 및 공사의 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서울 도심권 안에 공원 속 성지 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 개방됐다. 개관 기념식에 온 관람객의 기대 섞인 공간 순례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여전하다. 어찌 보면 이제 시민에게 열려 박물관 운영이 시작됐지만,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사용하며 아쉬움을 채울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 또한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잘 쓰이고 발전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역사와 종교로 무장한 특징적 분위기를 무기 삼아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할 뿐이다.

© (주)건축사사무소 인터카드



상 위에서 내려다본 전시공간
중 순례길을 건축학적으로 재해석한 하늘광장
하 하늘길